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영역 **윤리와 사상** 정답 및 해설

01. ② 02. ③ 03. ② 04. ② 05. ① 06. ③ 07. ④ 08. ③ 09. ⑤ 10. ⑤  
11. ③ 12. ① 13. ⑤ 14. ⑤ 15. ① 16. ① 17. ⑤ 18. ③ 19. ④ 20. ④

### 1. 이황이 강조하는 삶의 태도 파악

**정답 해설** : 편지를 쓴 한국 사학가는 이황이다. 이황은 경(敬)을 특히 강조하면서 그것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 주일무적(主一無適), 정제엄숙(整齊嚴肅), 상성성(常惺惺)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이 편지의 내용에 가장 부합하는 삶의 태도는 '경건한 마음으로 이치를 탐구하고 성찰의 자세를 잃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정답 ②**

#### [오답피하기]

- ① 유학자인 이황은 오륜을 비롯한 인륜 도덕을 철저히 따를 것을 강조하였다.
- ③ 도가 사상가인 장자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이다. 이황은 사단, 칠정 등의 개념을 엄밀히 구분해 보려고 하였으며, 유교적 도덕규범을 철저히 따를 것을 강조하였다.
- ④ 이황은 성리학자로서의 삶에 충실했던 사상가이다. 설령 유교를 하나의 종교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가 유교 이외의 다른 종교에 관심을 두었다고 할 수는 없다.
- ⑤ 이황은 '분별적인 지식'의 제거를 주장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다른 유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사물에 대한 지식을 쌓을 것을 강조하였다.

### 2. 스토아학파와 에피쿠로스학파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에픽테토스이고, 을은 에피쿠로스이다. 에픽테토스가 금욕적인 삶을 추구한 데 비해 에피쿠로스는 지속적이고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하였다. 에피쿠로스에게 따르면 사려 깊고 고상하며 정의롭게 살아야 참된 쾌락을 누릴 수 있다. **정답 ③**

#### [오답피하기]

- ① 에픽테토스를 비롯한 여러 스토아 사상가들은 인간이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각자의 사회적 역할과 의무를 다할 것을 강조하였다.
- ② 에픽테토스는 주어진 상황과 여건에 순응할 것을 강조하였다.
- ④ 에피쿠로스는 고통이 없는 상태가 다른 아닌 쾌락이라고 보았다.
- ⑤ 에픽테토스와 달리 에피쿠로스는 쾌락을 가져오거나 고통을 피할 수 있는 행동을 할 것을 강조하였다.

### 3. 칸트와 갈통의 평화 사상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칸트이고, 을은 갈통이다. 칸트는 영원한 평화를 위해 각 국가는 공화정체를 갖추어야 하고 국제적으로는 '평화 연맹'을 창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비해 갈통은 모든 폭력이 제거된 적극적 평화의 실현과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였다. 칸트에 따르면 평화 연맹은 소속 국가들의 자유를 유지하고 보장하는 데에만 관여해야 한다. **정답 ②**

#### [오답피하기]

- ① 칸트는 영원한 평화를 위해 개별 국가가 공화정체를 갖추어야 한다고 보았다.
- ③ 갈통은 폭력을 반대하면서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였다.
- ④ 갈통은 전쟁과 같은 직접적 폭력은 물론이고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까지 모두 사라진 상태를 진정한 평화로 보았다.
- ⑤ 칸트와 갈통은 모두 단일한 세계 정부를 창설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 4. 석가모니의 기본 입장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은 석가모니의 주장이다. 석가모니는 인간을 구성하는 오온(五蘊)이 모두 무상(無常)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四聖諦(사성제)]를 깨달을 것을 강조하였다. 석가모니에 따르면 우리가 사성제를 깨닫고 실천하여 열반에 이르면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된다. 정답 ②

##### [오답피하기]

- ① 석가모니는 탐·진·치라는 삼독(三毒)을 제거해야 열반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 ③ 석가모니는 고통을 없애기 위해 팔정도(八正道)를 실천할 것을 강조하였다.
- ④ 석가모니는 늘 변화하여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無常]이 오온의 참모습임을 바르게 깨달을 것을 강조하였다.
- ⑤ 석가모니는 연기법을 바르게 이해하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았다.

#### 5. 스피노자가 추구한 바람직한 삶의 자세 파악

**정답 해설 :** 가상 대담을 하는 사상가는 스피노자이다. 스피노자는 인간이 지복(至福)을 누리려면 이성의 인도에 따라 자기를 보존하고 신을 지적으로 사랑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이성의 인도하에 행동하고 생활하며 자신의 존재를 보존하는 것이다. 그리고 신을 직관적으로 인식함으로써 생겨나는 정신의 만족인 지복은 신에 대한 지적인 사랑에서 생겨난다. 정답 ①

##### [오답피하기]

- ② 스피노자는 신을 비롯한 어떤 존재도 필연성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보았다.
- ③ 스피노자에 따르면 신은 만물을 창조한 인격신이 아니라 스스로가 자신의 존재 원인인 자연 그 자체이다.
- ④ 스피노자는 신을 만물의 초월적 원인이 아니라 내재적 원인으로 보았다.
- ⑤ 스피노자는 인간에게 자유 의지가 없다고 보았다.

#### 6. 케인스와 하이에크 사상의 비교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케인스이고, 을은 하이에크이다. 케인스는 완전 고용의 실현과 유효 수요 창출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비해 하이에크는 정부의 규모와 기능을 축소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되는 시장 경제를 확대할 것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시장의 자생적 질서를 신뢰하는 정도(X)는 하이에크가 높다. 그리고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 지출의 확대를 강조하는 정도(Y)는 하이에크가 낮다.

또한 정부의 규모 및 역할의 축소를 강조하는 정도(Z)는 하이에크가 높다. 이러한 특징을 나타내는 것은 ㉠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②, ④, ⑤ 케인스의 입장에 비해 하이에크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이라고 할 수 없다.

## 7. 흄의 기본 입장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은 흄의 주장이다. 그에 따르면 도덕적 행위의 직접적인 원인은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다(ㄱ). 그리고 인간의 자연적 성향인 공감은 우리의 도덕적 감정에 보편성을 부여하는 근거이다(ㄷ).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유용한 것에 대해 시인의 감정을 갖게 되는 것도 공감 능력 때문이다(ㄴ). **정답 ④**

**[오답피하기]**

ㄴ. 흄에 따르면 이성은 도덕적 행위의 직접적 원인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이성인 상황의 분석이나 합리적인 대책의 수립 등과 관련해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

## 8. 주희와 왕수인 사상의 비교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주희이고, 을은 왕수인이다. 주희는 마음[心]을 인식 주체로, 이치[理]인 성(性)을 인식 근거로 보았다. 그에 따르면 성은 곧 이치이며, 마음은 성에 따라 정을 주재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왕수인은 마음과 성의 내용은 다르지 않으며, 마음 밖에는 이치가 없다[心外無理]고 보았다. 그러므로 ‘성과 마음은 그 의미가 명확하게 구분되는가?’(ㄴ), ‘마음은 이치인 성에 따라 정(情)을 주재해야 하는가?’(ㄷ)라는 질문에 대해 주희는 긍정, 왕수인은 부정의 대답을 할 것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ㄱ. 주희와 왕수인 모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ㄷ. 주희와 왕수인 모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주희와 왕수인은 격물치지의 의미를 다르게 파악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천리(天理)인 성이나 마음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9. 현대 공화주의와 현대 자유주의 사상의 비교 이해

**정답 해설** : (가)의 갑은 현대 공화주의 사상가인 비롤리이고, 을은 현대 자유주의 사상가인 벌린이다. 비롤리는 타인의 자의적 지배가 없는 상태를 참된 자유로 여겼는데 비해 벌린은 간섭과 방해의 부재를 자유로 보았다. 벌린에 따르면 ‘~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소극적 자유가 진정한 자유이기 때문에(ㄷ), 국가가 시민에게 좋은 삶을 위한 덕목 실천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ㄴ). **정답 ⑤**

**[오답피하기]**

ㄱ. 비롤리와 벌린 모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ㄴ. 비롤리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그에 따르면 우리 모두는 자유롭기 위해

법에 복종한다. 진정한 자유는 법에 의해 보장되는 평등을 의미한다.

#### 10. 순자와 맹자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순자이고, 을은 맹자이다. 성악설을 주장한 순자는 예치(禮治)를 제시하였다. 이에 비해 성선설을 주장한 맹자는 왕도(王道) 정치를 추구하였다. 맹자에 따르면 왕도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백성의 항산(恒産), 즉 일정한 경제적 기반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정답 ⑤**

#### [오답피하기]

- ① 순자는 덕과 능력에 따라 사회적 지위와 관직이 분배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② 순자는 성왕(聖王)이 제정한 예(禮)를 통해 악한 본성을 교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 ③ 맹자는 백성이 가장 귀하고 사직(社稷)이 다음이며 군주는 가볍다고 보았다.
- ④ 맹자는 인의(仁義)를 해쳐 백성을 고통스럽게 하는 군주는 교체할 수 있다는 민본주의적 혁명론을 제시하였다.

#### 11. 프로타고라스, 소크라테스, 듀이가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 내용 파악

**정답 해설** : (가)의 갑은 프로타고라스이고, 을은 소크라테스이며, 병은 듀이이다. 프로타고라스는 각 개인의 감각적 경험이 진위 판단의 기준이라고 보았다. 소크라테스는 보편타당한 지식이 존재하며 우리는 이성을 통해 그것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다. 듀이는 경험적 검증을 통해 유용성이 있다고 판정된 명제를 진리로 보았다. 그러므로 듀이는 소크라테스에게 상황에 따라 지식의 타당성이 가변적일 수 있음을 간과한다는 비판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③**

#### [오답피하기]

- ① 소크라테스와 프로타고라스는 모두 인간과 사회에 대한 지식을 중시하였다.
- ② 듀이는 진리 파악을 위해 이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④ 프로타고라스는 개인의 경험에 따라 진리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다.
- ⑤ 듀이는 지식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문제 해결의 도구로 보았다.

#### 12. 동학의 입장에서 위정척사 사상의 입장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비판 내용 파악

**정답 해설** : 갑은 동학 사상가인 최시형이고, 을은 위정척사 사상가인 이항로이다. 최시형은 유교적 신분 질서의 변혁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에 비해 이항로는 정통 주자학의 기본 입장을 계승하였다. 그러므로 최시형은 이항로에게 유교적 신분 질서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함을 모르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①**

#### [오답피하기]

- ② 최시형은 개벽 이전에 모든 규범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성·경·신(成敬信) 등의 규범을 강조하였고, 새로운 규범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 ③ 이항로는 서양 사상과 종교를 철저하게 배척할 것을 강조하였다.
- ④ 최시형은 개벽의 시대가 다가왔음을 깨닫고 이러한 시대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

할 것을 강조하였다.

⑤ 이항로는 유교적 인륜 도덕을 사회 운영의 기본 원리로 삼을 것을 강조하였다.

### 13. 모어와 플라톤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모어이고, 을은 플라톤이다. 모어는 ‘유토피아’를 이상 사회로 제시하였으며, 플라톤은 철학자가 통치하는 이상 국가를 추구하였다. ‘유토피아’에서는 모든 재화가 공유되며, 이상 국가에서는 통치자 계층의 재산이 공유된다. **정답 ⑤**

#### [오답피하기]

- ① 유토피아인들은 일정한 시간 동안 노동을 하면 자유롭게 여가를 즐길 수 있다.
- ② 유토피아인들은 경제적으로 풍요롭지만 사치를 멀리하고 검소하게 생활한다.
- ④ 이상 사회에서는 철인 군주가 좋음의 이데아를 준거로 삼아 국가를 통치한다.
- ⑤ 이상 사회에서는 통치자 계층은 지혜, 방위자 계층은 용기, 생산자 계층은 절제의 덕을 발휘하여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룬다.

### 14. 장자와 맹자 사상의 비교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장자이고, 을은 맹자이다. 장자는 인의(仁義)와 예(禮)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그에 따르면 인의는 인간 본성을 어지럽히고 예는 세상을 혼란하게 만든다. 그러나 맹자는 인의를 강조하였으며, 예도 중시하였다. **정답 ⑤**

#### [오답피하기]

- ① 장자와 맹자 모두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장자에 따르면 언어로 도에 이를 수 없다. 그리고 맹자에 따르면 인의는 인간의 본성이다.
- ② 장자와 맹자 모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 ③ 장자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장자에 따르면 도를 행하는 자는 날마다 분별적 지식을 덜어 낸다.
- ④ 장자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그는 도의 관점에서 만물을 바라봄으로써 시비선악의 분별에서 벗어날 것을 강조하였다.

### 15. 밀과 칸트 사상의 비교 이해

**정답 해설** : (가)의 갑은 밀이고, 을은 칸트이다. 밀은 의무감에서 비롯된 선한 행위와 함께 결과적으로 다수에게 쾌락을 가져다준 행위를 도덕적인 행위로 보았다. 이에 비해 칸트는 의무에 맞을 뿐만 아니라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갖는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의무를 동기로 삼지 않는 행위도 도덕적 가치를 지닐 수 있다(γ).’라는 것은 밀만의 입장이다. 그러나 밀과 칸트는 모두 도덕 원리에 인간 평등의 이념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았다(ㄴ). **정답 ①**

#### [오답피하기]

ㄷ. 칸트의 입장이 아니다. 무조건적인 명령, 즉 정언 명령에 따르는 것은 실천 이성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며 자율적으로 도덕 법칙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ㄴ. 밀과 칸트의 공통 입장이다. 밀은 공리의 원리, 칸트는 도덕 법칙에 비추어 행위의 도덕성을 판단하기 때문이다.

#### 16. 원효와 혜능의 공통 입장 파악

**정답 해설** : 갑은 원효이고, 을은 혜능이다. 원효는 일심(一心) 사상에 근거해서 화쟁(和諍) 사상을 제시하였다. 모든 존재의 근원인 일심은 깨끗함과 더러움 등 일체의 이원적 대립을 초월한 것이다. 혜능은 자신의 마음을 직접 보고[直指人心(직지인심)], 자신의 본성이 곧 불성(佛性)임을 깨달아 부처가 될 것[見性成佛(견성성불)]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두 사상가는 모두 모든 존재와 현상은 마음이 지어낸 것이며(ㄱ), 아무리 비천한 사람이라도 불성을 지니고 있다(ㄴ)고 보았다. **정답 ①**

#### [오답피하기]

ㄷ. 원효는 염불을 하면 누구나 극락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혜능은 염불을 통해 서방정토(西方淨土)에 태어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보았다. ㄴ. 원효와 혜능 모두의 입장이 아니다.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그 순간에 '과거 행동의 결과'가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과거 행동의 결과'를 '업보(業報)'로 이해할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다.

#### 17.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플라톤이고, 을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플라톤은 지혜, 용기, 절제, 정의라는 네 가지 주된 덕의 실현을 강조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에 따르는 정신의 활동인 행복을 인간이 추구해야 할 최고선으로 보았다. 두 사상가는 모두 올바른 통치를 위해 통치에 대한 지혜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정답 ⑤**

#### [오답피하기]

- ① 플라톤에 따르면 영원불변하는 이데아는 오직 이성을 통해서만 파악할 수 있다.
- ② 플라톤에 따르면 이데아는 오직 이데아계에만 존재한다.
- ③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품성적 덕은 모두 옳은 행동의 습관화를 통해 생긴다.
- ④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실천적 지혜는 지성적 덕의 하나이다.

#### 18. 이황과 이이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이황이고, 을은 이이다. 이황에 따르면 본연지성은 이(理)만을 말하기 때문에 순선무악하다. 이이에 따르면 본연지성은 기질지성에 포함된다. 이이는 이와 기(氣)가 사물에서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각각 따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에 따르면 사단과 칠정은 모두 기가 발하여 이가 탄 것이다. **정답 ③**

#### [오답피하기]

- ① 이황에 따르면 본연지성은 오직 이(理)일 뿐이다. 이러한 본연지성이 발한다면 그것은 각 개인이 품부받은 기질과 상관없이 언제나 순선무악한 사단이 된다.
- ② 이황에 따르면 이와 기는 서로 분리되지 않지만 이가 발하는 과정[理發而氣隨之]

---

(이발이기수지))과 기가 발하는 과정[氣發而理乘之(기발이이승지))은 서로 다르다.

④ 이이에 따르면 천리가 기질에 들어와 이루어진 성, 즉 기질지성은 본연지성을 포함한다.

⑤ 이이에 따르면 이는 비록 만물의 근원이라고 하더라도 기와 별도로 홀로 존재할 수 없다.

## 19. 아우구스티누스, 아퀴나스, 키르케고르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아우구스티누스이고, 을은 아퀴나스이며, 병은 키르케고르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의 은총으로 진리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고 보았으며, 아퀴나스는 감각 경험에서 출발해서 이성으로 신을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았다. 키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인 절망은 오직 신앙으로만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는 모두 신앙뿐만 아니라 신의 은총이 있어야 참된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정답 ④**

### [오답피하기]

①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신은 악을 만든 자가 아니다. 존재의 결여인 악은 인간이 자유 의지를 남용함으로써 생겨난 것일 뿐이다.

② 아퀴나스는 이성에 대한 신앙의 우선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추구하였다.

③ 키르케고르에 따르면 죽음에 이르는 병인 절망은 신 앞에 홀로 나아가 그에게 귀의함으로써만 온전히 극복될 수 있다.

⑤ 아퀴나스는 실존적 자각이 아니라 이성적 추론을 통해 신의 존재를 알 수 있다고 보았다.

## 20. 누스바움의 세계 시민주의 이해

**정답 해설** : 그림의 강연자는 세계 시민주의를 주장한 누스바움이다. 그녀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 두 가지 공동체, 즉 ‘출생한 지역 공동체’와 이성과 도덕적 가치를 존중하는 ‘인간적 주장과 포부의 공동체’에 속한 주민이며, 우리의 도덕적 의무의 근본적 원천은 후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편적 인류애를 중시해야 한다.

**정답 ④**

### [오답피하기]

① 누스바움에 따르면 우리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공유하고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

② 누스바움에 따르면 우리는 누구도 우리의 관심 밖에 있는 이방인이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③ 누스바움에 따르면 우리는 인류 전체에 대한 사랑을 도덕적 의무의 원천으로 삼아야 한다.

⑤ 누스바움에 따르면 우리는 어떠한 편견도 타인을 혐오하는 구실이 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